

세계문화 강의 정보

■ 전체 주제명: 사인사색(四人四色) 세계 인문학

□ 제1강 - 미국 민주주의 가치 향연: 기본 가치에 대한 질문

- 강사: 조운익(부산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교수)
- 일시: 2025. 10. 17.(금) 10:00 ~ 12:00

본 강의는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오늘날까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 사회의 탄생 배경에서부터 헌법 제정 과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평등, 자유, 독립적 삶의 이상을 추적함으로써 미국 민주주의의 뿌리와 현재적 함의를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의 건국 문헌 속 핵심 문구와 사상가들의 이상이 어떻게 오늘날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 있는지를 탐구하며, 시민적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 제2강 - 아프리카와 유대인

- 강사: 임기대(부산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과 교수)
- 일시: 2025. 10. 24.(금) 10:00 ~ 12:00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누구인가? 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은 존재하지 않았는가? 아프리카를 이해한다면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이번 강의는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유대인은 누구이며, 그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헤쳐 본다. 아프리카와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을 함께 이해하는 본 강의는 21세기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는 정체성과 공존이라는 인류 보편의 과제를 되묻는 의미 있는 성찰의 장이 될 것이다.

□ 제3강 - 유럽의 문화, 아는 만큼 보인다

- 강사: 김원(부산외국어대학교 유럽지역통상학과 교수)
- 일시: 2025. 10. 31.(금) 10:00 ~ 12:00

이 강의는 유럽의 문화적 다양성과 그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여행이나 뉴스, 예술작품을 접할 때 훨씬 깊이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유럽 문화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건축물과 음식, 예술의 향연을 넘어 수백 년의 역사와 가치관,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산물이다. 본 강의에서는 유럽 문화의 특징을 신화와 종교, 역사, 예술 등의 측면에서 보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 제4강 - 중국 역사 속 미인 이야기

- 강사: 김미경(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중 전공 교수)
- 일시: 2025. 11. 7.(금) 10:00 ~ 12:00

중국 역사에는 ‘경국지색(傾國之色), 즉 ‘미색(美色)이 나라를 기울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인과 정치, 권력의 이야기가 자주 교차한다. 그 가운데 서시, 왕소군, 초선, 양귀비는 중국을 대표하는 ‘4대 미녀’로 꼽히며, 단순히 미모의 상징이 아니라 역사와 문학, 그리고 문화적 상상력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본 강의는 네 인물 가운데 특히 서시와 왕소군의 생애와 전설을 중심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내며, 그들의 삶이 중국 역사와 사회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미인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미적 가치가 아니라, 정치와 문화, 역사적 사건과 긴밀하게 얽혀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유럽 문화 강의 정보

■ 전체 주제명: 유럽 문화 - 예술과 인문학의 융합

□ 제1강 - 예술 작품으로 보는 그리스 신화와 전설

- 강사: 김 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유럽지역통상학과 교수)
- 일시: 2025. 11. 14.(금) 10:00 ~ 12:00

유럽의 예술 작품 속에는 신화, 종교, 역사, 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으며, 그중에서도 그리스 신화와 전설은 서양 미술의 중요한 원천이 되어 왔다. 본 강의는 르네상스와 고전주의,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회화와 조각 속에 담긴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 속 인물과 상징, 서사적 배경을 통해 신화가 어떻게 시대와 예술

가의 상상력 속에서 재탄생했는지를 탐구하며, 동시에 신화를 바라보는 예술적 시각과 문화적 의미를 융합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예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동시에, 신화가 오늘날까지도 갖는 보편적 가치와 매혹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제2강 -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 빈치를 만나다

- 강사: 김 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유럽지역통상학과 교수)
- 일시: 2025. 11. 21.(금) 10:00 ~ 12:00

르네상스 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예술과 과학, 철학이 꽃피운 위대한 전환점이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이다. 그는 화가이자 과학자, 발명가이자 사상가로서 시대를 초월한 천재성을 보여주었고, 그의 작품은 단순한 그림을 넘어 르네상스 인간 정신의 집약체라 할 수 있다. 본 강의는 다 빈치의 대표적인 회화 작품들을 중심으로,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역사적 배경, 그리고 르네상스 문화의 맥락을 살펴본다.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등 잘 알려진 걸작들이 어떻게 시대적 사조와 인간에 대한 탐구를 반영했는지 이해하며, 동시에 예술가로서 다 빈치가 우리에게 전해 주는 창의와 통찰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제3강 - 프랑스 혁명을 그리다, 루이 다비드

- 강사: 김 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유럽지역통상학과 교수)
- 일시: 2025. 11. 28.(금) 10:00 ~ 12:00

자크 루이 다비드는 프랑스 신고전주의 회화의 대표적 거장이자 혁명의 시대를 예술로 기록한 화가이다. 본 강의에서는 다비드의 주요 작품을 통해 고대 로마 건국 신화를 재현한 웅장한 역사화부터, 프랑스 혁명의 격변과 이상을 담아낸 작품들까지 함께 살펴본다.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사비니 여인들의 중재’, ‘미라의 죽음’,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 등 당대의 정치적·사회적 상황과 긴밀하게 맞물린 그림들은 예술이 단순한 미적 표현을 넘어 사상과 이념을 전파하는 강력한 수단이었음을 보여준다. 본 강의는 다비드의 작품 세계와 프랑스 혁명의 역사적 맥락을 연결하여, 예술과 시대정신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고찰하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 제4강 - 모던을 향한 발칙한 도발, 마네의 <올랭피아>

- 강사: 김 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유럽지역통상학과 교수)
- 일시: 2025. 12. 5.(금) 10:00 ~ 12:00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 <올랭피아>는 19세기 파리 살롱을 충격과 논란의 중심으로 몰아넣은 문 제작이었다. 고전적 누드화의 전통을 차용하면서도 당대의 현실과 사회적 시선을 정면으로 드러낸 이 작품은, 예술의 규범과 도덕적 관습에 도전하며 모더니즘 미술의 서막을 열었다. 본 강의에서는 <올랭피아>가 고대와 르네상스의 누드 전통과 어떻게 단절하면서도 이어졌는지, 또 당대 사회가 이 작품을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본다. 더 나아가 마네의 혁신적 화풍과 파격적 주제가 인상주의 및 현대 미술로 이어지는 길을 어떻게 열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예술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가지는 의미와 힘을 탐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